

## 만엽(萬葉)의 식물(植物)들

金完嶺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1.

만엽이란 일본의 만엽집(萬葉集)을 줄여서 이르는 말로서 일본 발음으로는 *manyō* 또는 *mannyō*라 한다. 요즘 나오는 일본의 출판물에서는 ‘萬’을 약자로 써서 ‘万葉’, ‘万葉集’이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삼대목에 필적하는 가장 오래된 일본의 가집(歌集)으로 모두 20권, 8세기 후반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관찰의 대상을 만엽의 단어들에 한정할 절대적인 이유는 없다. 일차적으로는 현대의 사전 자료 같은 것에 의존할 때 생길지도 모르는 돌발 사고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고대에 있어서의 차용 관계, 더 나아가서는 기원적인 친연 관계를 전제로 한 사고까지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취하는 방어적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비근한 예를 국어연구원이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 생각해 보자. ‘가랏<sup>1</sup>’로 표시된 표제어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어 있다.

십자화과의 두해살이 풀. 갓과 비슷한데 녹색이고 털 매운 것이 다르다.

주로 김치를 담그는 데 쓴다. 일반적으로 가을에 씨를 뿌려 겨울을 나고 봄에 거둔다. = 왜갓

들어 본 일이 없는 단어인데, 예문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문학 작품에 쓰인 것을 채취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추측컨대 어느 전문 집단(혹시 요식업?) 같은 데서 제공받은 것이 아닐까 싶다. 일본말로는 ‘갓’을 *karasi-na*라 하며 한자로는 ‘芥子菜’라 쓴다. ‘겨자’ 즉 ‘芥子’는 *karasi*라 하고 거기 붙은 *na*(菜)는 ‘채소’를 지칭한다. (고추는 *tō-garasi* 唐芥子로서 ‘겨자’를 거기 대비시킬 때에는 *wa-garasi* 和芥子라 한다.) *karasi-na*에서 *-na*가 떨어지고 *karasi*가 ‘가랏’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것으로 이해되어 ‘이’를 떼어 버려 문체의 ‘가랏’이 성립되어 사전에 오르게 되었을 것 같다. 생각하면 참으로 희한한 내력을 지닌 단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가랏’을 다시 일본어의 *karasi* 또는 *karasi-na*와 나란히 놓고 재채를 부른다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또한 무서운 일이겠는가. 젊은 날에 남해안의 방언 조사를 하다가 삼(杉)나무에 대한 대답으로 ‘송나무’를 듣고 악연하였던 기억이 살아난다. 이 나무는 본래 우리 땅에는 없던 것, 일본어의 *sugi*(*suji*)가 그렇게 탈바꿈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하필 식물명인가. 그것은 자의적인 선택이다. 동물 이름을 대상으로 하여도 재미있는 일거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실상 필자는 일본어의 *tora* ‘虎’와 같은 단어에 각별한 매력을 느껴 온다. ‘범’이 살지 않는 나라에서 ‘범’을 가리키는 *tora*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흥미있는 일인가. 그것이 대륙의 어느 종족의 언어에선가 발견이 된다면 얼마나 황홀한 일이겠는가. 실망스럽게도 그런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 (비교언어학자들이 종종 이런 작업을 한다.)

만엽의 식물명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매우 우연한 계기에서였다. 10년 전 한겨울이었지만, 호기심으로 나라(奈良)에 있는 만엽식물원을 찾은 일이 있다. (春日大社 경내에 있는 아담한 식물원이다.) 나무는 낙엽이 지고 풀은 말

라버렸는데, 구석에 한무더기 ‘신우대’ 앞에 *sino-dake*(篠·小竹)의 팻말을 발견한 것은 추위를 잊게 하기에 족하였다. 이윽고 전부터 관심이 있던 *afufi*(*aoi*)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것은 좀 까다로운 말이어서 시대에 따라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다. 한자로는 ‘葵’로 표기되는데 만엽시대의 것은 ‘冬葵’, 즉 식용으로 재배하는 채소인 ‘아욱’이다. 국어 문헌에 확보된 것은 ‘아욱’이지만, 경상도 방언의 ‘아북’에 힘입어 비교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들쭉는 꽃을 감상하는 ‘蜀葵花’(흔히 접시꽃), 일본 사람들이 서(立)있다는 뜻으로 *tachi-aoi*라 하는 것, 이것은 덕천가(德川家)의 문장이었다.(이밖에도 *aoi*에는 한 가지 더 있다.) 식물명을 다룰 때의 어려움은, 어떤 언어에서나 비슷하지만, 같은 말이 여러 다른 대상을 지칭하기도 하고 같은 식물에 둘 이상의 명칭이 쓰이기도 한다는 점인데, 만엽의 식물명에 대해서도 정설을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sup>1)</sup>

## 2.

이미 앞에서 그런 식으로의 표기를 보인 바 있지만, 일본어의 표기는 로마자로 하고 국어의 표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나타낸다. 고대 일본어에 대해서는 모음에 이른바 갑을류(甲乙類)를 구분하기도 하고 자음에 대하여도 특별한 처리를 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되도록 통속적인 방법으로 적

---

1) 식물 이름을 다룰 때,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에 식물학의 간섭이 있다. 분류학이 학명을 붙여 주며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주는 등의 고마운 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것 이외에는 ‘신우대가 아니다’라는 식의 표현을 우리가 따라 해야 하는가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가령 사전에서의 ‘신우대’의 설명에 부차적인 항목으로 경기 지방에서의 ‘식대’를 가리키는 방언이라 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데, ‘식대’를 찾아보면 ‘해장죽’과 같은 말이라 되어 있다. 식물학 용어로서의 ‘신우대’와 일상 용어로서의 ‘신우대’를 구별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분류 체계나 용어의 변화에도 혼란을 느낀다. 석남과와 철쭉과가 같은 내용인가 하면 능금나무과라 하던 것이 지금은 더 넓게 장미과라 부르는 것 등은 그 한 보기이다.

는다. 대문자 F로 적는 h 계열의 음도 소문자 f로 표시하는 정도에 그친다.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참나무 종류의 수목명이다.(일본에서의 眞木 *maki*는 杉, 檜, 松 등 건축재로 적합한 나무들로 우리와 다르다. 그러나 땀감도 *maki*(新)라 한다.) 참나무 종류의 일본어 총칭은 *fafaso*였다.

일본어 *kasi*에 대하여 국어의 '가시'가 대응된다. 일본에서는 흔히 '檜'자를 쓰나(단단한 나무의 뜻이겠다.) 이것은 소위 일본의 국자(國字)로서 중국이나 한국에는 없던 글자이다. '檜', '櫛'도 *kasi*라 읽히는데, 만엽에 쓰인 것은 앞의 글자이다.(우리는 '櫛'자를 쓴다.)

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가시나무'의 설명 ③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참나무과의 상록 활엽 교목. 높이는 10~20미터이며, 잎은 긴 타원형에 톱니가 있다. 암수한그루로 봄에 누런 갈색 꽃이 피고 열매는 식용하며 도토리과 비슷한 모양이다. 재목은 여러 가지 가구재, 땀감 따위로 쓴다. =가시목·면저(麵櫛), 침저<sup>2</sup>(喙櫛).(*Quercus myrsinaefolia*)<sup>2</sup>)

일본어의 'kasi'에 대한 설명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와

2) ④번의 설명에서는 '민둥인가목'과 같은 것으로 하여 '가시나무'(초간두시언해)로부터의 발달이라 하였다. 그러나 민둥인가목은 장미과의 낙엽 관목이니까, 지금의 '가시나무'와는 관계가 없다.

②번의 설명에는 무엇인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래나뭇과의 돌가시나무, 북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하고 있으나, 열거된 이름들은 가시나무의 종류들일 뿐, 가래나뭇과(Juglandaceae)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종전의 사전들에서는 이 자리에 '너도밤나무과'라는 말이 와 있다. 이는 학명 Fagaceae에 해당하는 말로 지금의 참나뭇과다. ②와 ③은 총칭과 특칭의 차에 불과하다.

가시나무의 학명도 혼동하기 쉽다. 지금의 *Quercus m.*과는 달리 *Cyclobalanopsis m.*이 쓰인 것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양자가 병기된 경우도 있다.)

어형이 완전히 일치할 때에 연구자는 오히려 그것이 최근의 차용으로 앞에서 보았던 ‘가랏’과 같은 것이 아닌가 경계하게 된다. 저들의 *kasi*가 8세기에 문증되어 있는 반면 우리의 ‘가시’는 역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약점까지 지녔다. 더욱이 ‘가시나무’의 분포 영역은 제주도와 남해안 도서지대에 편재되어 있어 삼나무의 경우와 같은 것이 아닐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의 한자 사전에서는 ‘櫛’에 대하여 ‘저나무 저’라 하고 있을 뿐이다. 『本草拾遺』를 인용하여 『子生江南 皮樹如栗 冬月不彫 子小如橡』라 한 것으로 보아 ‘가시’를 생각해 하나, 가시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다. - 장삼식의 경우.

‘櫛’자를 *kasi*라 읽는 것은 일본에서의 이른바 ‘國訓’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훈을 ‘참죽나무’, ‘박달나무’ 등으로 해 오는 것은 편방에 유추된 것일까 한다.)

그러나 ‘가시-나무’에 대하여는 그것을 우리 고유의 언어재로 생각할 만한 상황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가 한다. 첫째로 그것은 해외에서 들어온 양자 식물이 아니고, 기후의 제약으로 남부에 편재되기는 하지만, 제주도와 다도해 지역, 서쪽으로는 흑산도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울릉도에 이르기까지 널리 자생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 둘째로는 여러 종류가 있어 ‘북가시나무, 종가시나무, 가시나무, 넓은잎가시나무’ 등이 보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언어면에서는 우선 제주어사전에 ‘가시냥’(=가시-목)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하거니와, 이 사전은 ‘스기’(杉)나 ‘사쿠라’(櫻) 같은 것은 실지 않은 사전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좋고 단단한 것을 비유함에 ‘가시냥’을 든다. 또 앞에서 들었던 ‘가시나무’의 하위 명칭 중에는 식물학자들이 만든 것도 섞여 있겠지만, 한 종류에 대하여 괄호 안에 여러 명칭들을 병기하고 있는 예들을 볼 수 있어 현지에서 들었던 명칭이 밑에 깔려 있음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대조적으로 양자식물인 삼나무의 ‘杉’에 대하여 비슷한 ‘잇갈나무’(= 낙엽송)를 부회하다가 지식영의 『자전석요』에 이르러 ‘수괴’(일본어 *sugi*)를 받아들인 것까지는 이해가 가나, 최남선의 『신자전』에서부터 보게 되는 ‘으루나무’(이제는 국어사전에 나온다.)의 기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 3

일본어에 *tochi*(〈*toti*〉)라는 말이 있다. 한자로는 ‘栃’(소위 일본 국자로 자음은 없음)자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榎’자를 쓰기도 한다. 일본 특산으로 분류상으로는 칠엽수과의 낙엽 관목이다. 만엽에서의 용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나무 종류가 아님에도 ‘榎’자를 통용하는 것이 재미있고, 그 열매를 이용하는 품이 우리가 도토리를 이용하는 것과 유사하여 주목을 끈다. ‘榎’은 우리에게 있어 ‘도토리’ 즉 참나무류의 열매에 대한 통칭이다. ‘상수리’라 부르기도 하며 또 양자를 구별하기도 한다.

필자는 ‘도토리’를 ‘돌’과 ‘오리’로 분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여기서 ‘오리’는 ‘봉오리’〔〕봉우리)에 있어서와 같은 축소접미사) 일본어의 *toti*와 대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만엽에서의 ‘榎’자는 *tsurubami*(〈*turubami*〉)라 읽는데, 우리의 ‘도토리’에 해당하는 말(‘참나무’와 같은 나무의 총칭은 *fafaso*)로서 현대어에서는 *don-guri*(団栗)라 한다. ‘개암’(榛)을 뜻하는 *fasibami*와의 대비에서 \**bami*라는 명사가 있었을 것 같이 생각되며 그것은 국어의 ‘밤’[栗]을 상기시킨다. ‘도토리’와 ‘밤’은 가까우면서도 차이가 있는 존재이지만, *don-guri*(団栗)에 있어서의 *guri*(〈*kuri*〉)가 역시 ‘밤’을 뜻하는 명사라는 점에서 이런 어원론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한자어에 芡栗(서울)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한자사전들이 이를 ‘도토리’라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사전들이 ‘작은 밤’ 말하자면 ‘좀밤’이라 풀이하고 있는 것도 재미있는 차이로 할 수 있다. 저들이 말하는 芡栗은 나무 자체도 왜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芡栗을 ‘도토리’로 보는 견해는 이미 『물명고』(物名攷)에 올라 있다. 즉,

芡栗 참나무상수리<sup>3)</sup>

3) 芡(서)와 杼(저)는 다같이 ‘도토리’를 뜻하는 글자이면서도 ‘芡栗’은 한 단어로 ‘杼栗’은 ‘도토리와 밤’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말에서도 ‘밤’이 ‘밤’아닌 것을 지칭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마름’의 어원이 ‘물’과 ‘밤’의 결합에 소급하는 것 말고도, 참나무의 세계에서 ‘굴밤’(방언적으로는 ‘꿀밤’까지)을 만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토리’또는 상수리를 뜻하는 형태다. 나무 이름으로는 ‘굴밤나무’를 ‘졸참나무’의 다른 이름이라 하고 있다. 또 이에 가까운 것에 ‘굴참나무’라는 것도 있는데, ‘굴밤나무’, ‘굴참나무’의 머리에서 보는 ‘굴’을 통하여 일본어의 ‘*kur*’를 연상하게도 된다.

본래 고대에 있어서의 언어 간의 연관을 말하는 것은 가설적 성격이 강한 것이지만, 지금의 글에서 특히 *toti* 이후의 분석적 전제하의 얘기들은 필자의 취향에 치우쳐 너무 모험적인 것이 되지 않았는가 걱정된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자료의 제시 정도로만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작업가설(作業假說)들은 하나둘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모이면 어떤 그림을 보일 수도 있다.

정작 다른 사람들이 이미 주목했던 것들, 가령 *taku*(栲)의 문제 같은 것에는 붓이 머물지 못했다. 우리의 ‘닥’[楮]과 관련시키는 것인데, ‘닥’이 식물 명인데 비하여 저들의 *taku*는 그 섬유로 짠 직물이라는 차이가 있다. ‘栲’자에는 본래 그런 뜻이 없었기에 그들은 ‘國訓’이라는 말을 쓴다.